



말씀

“신앙인이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지난주 ‘긍정적인 언어’와 ‘부정적인 언어’ 중 어떠한 말을 많이 사용하였습니까? ‘긍정적인 언어’를 많이 하셨다면 한 주 동안 내면에서 예수님과 좋은 시간을 보내서 그럴 것입니다. 지난주 지루한 글을 읽어주신 자비하신 분들인데 말해 뒀겠습니까?

두 번째 군에 들어와 보니 변화된 점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언어 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10년 전만 해도 군에서 ‘폭언’은 위계질서를 잡는데 필수적인 부분이었죠. 아무리 좋은 사람도 군대에 가면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폭언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화로 인해 군대를 부정적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요즘은 스마트폰과 다양한 신고망으로, 폭언을 할 경우 바로 ‘징계’와 ‘처벌’을 받습니다.

그 결과 군에서 많은 언어 순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가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으로 ‘관계성’을 잃어버리거나 부대 신고망을 역이용하여 ‘이기적인 문화’가 형성되어, 정작 자신의 내면 안에 고립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대화 할 도구들은 늘어나는데 대화는 점점 줄어드는 상황.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대화를 통해 다양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며 성장한다는 것인데, 오히려 다양한 대화 도구들로 인해 그 표현이 줄어들다니 참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속 예수님께서서는 나의 기쁨을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표현하였는지 그 전달 방식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지,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마르 8,29)

오늘 복음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자신의 신원을 주고받는 내용이지요. 그러나 이 대화는 내용만 단순하게 전달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의 ‘대화 방법’을 전수하는 수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자신의 의도를 전달할 때 주변 사람들이 궁금한 것을 먼저 질문하시고, 답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운동, 공부, 시사 등등 주변 사람들이 관심 있는 소재를 물어본 뒤 그것에 맞춰서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재미있게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갑니다. 특히 오늘 대화는 가볍게 나누는 ‘수다’가 아닌, 관계적으로 깊어지는 ‘면담’으로 나아가죠. 이 대화의 질적 변화를 예수님께서서는 베드로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특별한 대화방식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면서 동시에 서로의 의도를 온전하게 이해시키죠. 이 특별한 나눔이 있을 수 있게 한 비법은 바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인생은 어쩌면 무언가를 끊임없이 전달하면서 마무리되는 기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군대는 각자에게 끊임없이 임무가 주어져 무언가를 전달해야 함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군대는 삶에서 필요한 표현 방법을 알려주는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질문을 통한 자기객관화’, ‘자신의 의도 파악’,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나눔’, ‘자신의 의도 전달’ 순으로 자신과 제자들의 신원을 전달한 예수님과 수업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조차도 모든 대화에서 자신의 의도를 완벽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서로의 표현 나눔을 통해 자신의 의도를 완벽하게 표현하죠.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대화 방법을 익힌다면 각자의 부족함이 서로의 기쁨을 발견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기 전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 준 것이 없는지 표현해보셨으면 합니다. 이 표현의 기쁨이 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언어의 나침반”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지, 베드로가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마르 8,29)



장대현(베드로) 신부
성요한(1진비) 성당 주임

제 1 독 시 회 답 송 제 2 독 시 복음 판호송

이사 50,5-9ㄴ
◎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 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야고 2,14-18
◎ 알렐루야.
○ 나는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지 않으리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게서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에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

복 음 영 성 제 송

마르 8,27-35
하느님, 당신 자애가 얼마나 존귀하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신 날개 그늘에 피신하나이다.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집

이홉 번째 시집

그들은 4~5시간밖에는 장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왕래, 싸움, 주먹질, 무장 약탈 같은 것이 경원을 시장이 아니라 습격되어 약탈당하는 도시처럼 느껴지게 하였습니다. 저녁이 되면 외국인들에게 돌아가라는 신호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같은 무질서 속에 철거가 시작됩니다. 군인들은 그들의 무기로 낙오자들을 밀어냅니다. 우리는 그 혼잡 속에서 빠져 나오는 데 무척 힘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훈춘으로 돌아가려 하였을 때 조선 교우들이 다시 우리한테로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작별할 결심을 할 수가 없어서 우리와 좀더 이야기를 나누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싶어서 온 것입니다. 저의 동행은 그들에게 인사를 하려고 말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저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포졸들이 우리를 장사 일이 아니라 다른 일로 온 사람으로 의심할까 두려워 그에게 다시 말에 오르라는 신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조선 교회의 호수 천신에게 경의를 표하고, 조선 교회의 순교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한 후 두만강을 건너 달단 지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는 길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먼저 미끄럼 타며 왔던 강의 얼음은 한창 녹고 있었습니다. 산 위에서 흘러 내려오는 시냇물들은 불어나 잡동사니와 목은 나무 등걸들과 거대한 얼음 덩어리들을 떠내려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행자들은 마차들을 가지고 여전히 도착하고 있었고 그래서 강가들이 혼잡했습니다. 그들의 소리와 맹수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강물의 요란한 소리와 뒤섞여 이 골짜기를 무시무시한 광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위험 속으로 감히 모험하려는 사람은 누구도 없었습니다.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얼음 밑에 깔려 죽는다고들 합니다. 저는 우리를 그곳까지 인도하여 주신 천주님의 안배에 의탁하고 건널 수 있는 데를 찾아 강을 건넜습니다. 제 동행은 좀더 신중하게 안내인을 데리고 아주 멀리 돌아서 갔습니다. 우리가 잃은 것이란 우리의 말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주교님의 지극히 순종하고 지극히 부당한 아들 안드레아 김해 김.
조선 부제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집』 발췌, 성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진기 자료집 제1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두려움 앞에서



두려웠다.	그래서 지키고 싶었다.
금방이라도	
끝장이 나 버릴 것	그게
같은 공포감.	나의 한계요,
	나의 실수였으며,
그동안 이룬 업적,	나의 죄가
명예, 수고가	되고 말았다.
모두 사라질 것만 같았다.	

상화이야기

<상채상사 재단회> 중 <시막에서의 엘리야>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당신을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답하였다. 그만큼 엘리야는 그들에게 익숙한 예언자였다. 열왕기 상권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가는 부분이 나온다. 엘리야는 목숨을 위협받고 두려운 나머지 광야로 나갔고, 싸리나무 아래 누워 하느님께 죽기를 간청했다.

그러나 잠든 엘리야를 천사가 몸을 흔들어 깨우며, “일어나 먹어라”라고 말한다. 그가 깨어보니 뜨겁게 달군 돌에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놓여 있었고, 이 음식에 힘을 얻어 밤낮으로 40일을 걸었다는 내용이 나온다. 본 그림은 그 장면을 충실히 묘사했고,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엘리야의 표정이 인상적이다. 그림의 오른쪽 모퉁이 부분에 다시 길을 떠나는 엘리야가 조그맣게 그려져 있다.

디에릭 비우즈, 1464년~1467년 제작
 피날 위 유희, 185x194cm
 로이벤, 성베드로 성당

인간은 끊임없이 먹어야 한다. 더 좋은 것, 더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한 여정도 서슴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맛난 것, 별난 것을 먹어도 우리는 곧 다시 배고프다. 죽는 순간까지 이것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의 갈증과 허기를 채우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것을 위해 우리는 어떠한 여정도, 수고스러움도 마다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다시 자문해본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기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장님 지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마르 8,34-35)

김은혜(엘리야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24주일: 교훈단 이원근 신부

◆ 교구장 동정

- 주교 영성 모임
 때·곳: 9.13(월)~14(화), 한국레지오마리아 기념관
- 총장, 목포해군, 성요한 성당 신부 방문 / 참사회의(화상)
 때: 9월 14일(화)
- 부사교(성요셉), 상무대, 총경 성당 신부 방문
 때: 9월 15일(수)

◆ ‘신부(神父)의 책장(시즌2)’ 인내

- 네이버 오디오클립,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 좋은 서적을 소개하고 나누며
 들려드리는 콘텐츠입니다.
 많은 관심과 청취 부탁드립니다.



“슬기로운 중” - “어떻게 하는 중이 진실하고 슬기로운 중이겠느냐?” (마태 24,45)